

## 01. 선사 문화의 발달~국가의 성립과 발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70만년 전</li> <li>- <b>멘석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먹도끼, 찍개, 찌르개</li> </ul> </li> <li>- 사냥, 채집, 어로</li> <li>- <b>이동 생활</b></li> <li>- <b>동굴, 마입</b></li> <li>-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sup>†</sup>개 유적, 제주 빌레 못 동굴</li> <li>- 후방기 기온 상승</li> <li>- 활·화살, 슴베<sup>†</sup> 찌르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8000년 무렵 시작</li> <li>- 간석기(농경 굴지구)</li> <li>- <b>기록비문, 뼈바늘(웃 그물)</b></li> <li>- <b>농경과 목축(신석기 혁명)</b></li> <li>- 정착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 민무늬 토기, <b>빗살무늬 토기</b></li> </ul> </li> <li>- 움집(강가, 바닷가)</li> <li>- 씨족(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 사회</li> </ul> </li> <li>- 원시 신앙</li> <li>- 토테미즘, 애니미즘, 사마니즘</li> <li>-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봉산 지탑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20세기 ~ 기원전 15세기(만주)</li> <li>- 기원전 10세기 이후(한반도)</li> <li>- 석기(실생활 도구), 청동기(무기·제기)</li> <li>- 밭농사, 벼농사 등 농경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당돌갑</b></li> </ul> </li> <li>- 불평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재산</li> <li>- <b>계급 발생(고인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 부근리, 고창 화순</li> </ul> </li> </ul> </li> <li>- 정복 전쟁</li> <li>- 천손 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5세기</li> <li>- 철제 농기구 사용</li> <li>- 농업생산력 증대, 인구 증가</li> <li>- 정복 전쟁 활발</li> </ul>	<p>▲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등의 유물·유적으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p>
<p>주먹 도끼(좌, 경기 파주 출토)와 슴베찌르개(우, 충북 단양 출토) 주먹 도끼는 한 손에 쥐고 도끼처럼 사용한 도구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슴베찌르개는 '슴베' 부분에 자루를 고정하여 창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였다.</p>		<p><b>고조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2333년</li> <li>- 단군왕검(제정일치)</li> <li>-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거친무늬 가을</li> <li>- 위만 조선(기원전 194)</li> <li>- 철기 적극 수용</li> <li>- 남부의 진예와 한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 번성</li> <li>- 한 무제의 침략(우가왕)</li> <li>- 기원전 108년 멸망</li> <li>- 한 4군(낙랑, 진번, 임둔, 현도) 설치</li> <li>- 8조 법금</li> </ul>		<p>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진한 마한 변한</p>
<p><b>부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화강 유역 평야 지대</li> <li>- 왕</li> <li>- 마가·우가·저가·구가</li> <li>- <b>사출도★</b></li> <li>- 영고(제천행사), 순장</li> </ul>	<p><b>고구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록강 중류 출본 지방(산악 지형)</li> <li>- 5부(제로부, 절노부 등)</li> <li>- <b>제가 회의★</b></li> <li>- 동맹(제천행사), 서옥제</li> </ul>	<p><b>옥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경도</li> <li>- 왕無 읍군·삼로</li> <li>- 민미느리제</li> </ul> <p><b>동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북부</li> <li>- 왕無 읍군·삼로</li> <li>- 무천(제천행사)</li> <li>- 책화, 족외혼</li> </ul>	<p><b>삼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중남부</li> <li>- 미한의 목자국 '왕'</li> <li>- 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랑, 왜 → 철 수출</li> </ul> </li> <li>- 제정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장(신지, 읍차)</li> <li>- 제사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 주관</li> </ul> </li> </ul> </li> <li>- 계절제</li> </ul>	

## 05. 고려의 정치

###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

- 왕건(철원, 918)
- 송악 천도(송악 갈지성, 919)
- 발해 멸망(926) → 유민 유입(934)
- 경순왕 투항 → 신라 멸망(935)
- 후백제 멸망(936)

### 태조(재위 918~943)★

- 호족 정책
  - 융합 : 혼인, 사성, 역분전 지급
  - 견제 : 기인, 사십관
- 훈요 10조★
  - 『정계』, 『제백료서』 반포
  - 북진 정책(청천강 ~ 영홍만)
  - 대거란 강경 정책(만부교 사건)



<태조 왕건의 통천관(通天冠)>

### 광종(재위 949~975)★

- 왕권 강화
  - 호족, 공신 세력 숙청
  - 노비안검법(956)
  - 과거체(성기, 958)
  - 칭제간원(장덕준풍)

### 성종(재위 981~997)

- 유교 정치 이념 채택
  - 최승로, 시무 28조★
    - 유교(서자국의 도), 불교(수신의 도)
    - 국지감 경비
    - 12목 설치 → 지방관(목사) 파견

### 중앙 행정 기구

- 2성 6부
  - 중서문하성(재신 : 낭사)
  - 상서성
    - ↳ 6부
  - 중추원(추밀 : 승선)
- 재추회의(재신 + 추밀)
- 도병마사★
- 식목도감
- 어사대 : 김찰
- 3사 : 회계

### ※ 대간

- 낭사 + 어사대
- 언론 담당

### 관리 등용

- 과거
  - 문과(예술과, 명경과)
  - 잡과(기술직)
  - 승과
  - 좌주문생제
  - 음서(蔭敘)
- 공신,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 과거 > 음서

### 문벌[門閥]

- 주요 관직 독점
- 왕실, 다른 문벌의 혼인

### 지방 행정 기구

- 경기
- 5도
  - 군, 현
    - 주현 : 지방관 파견
    - 속현 : 지방관 X, 향리가 통치
  - 양계(북계-동계)
    - 진
    - 향, 부곡, 소
    - 지방관 X
      - 과거 응시 제한, 가주 이전 자유 X, 세금 부담 多
- ※ 호족 → 향리

### 자료 2 「시무 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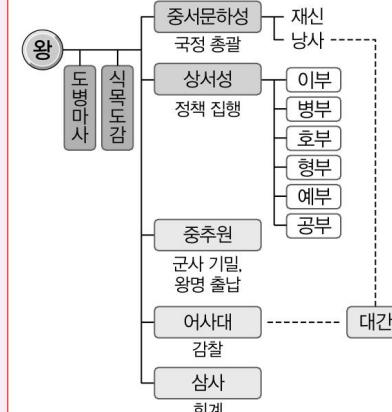
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여 매일같이 ..... 그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 호족들이 늘 공적인 업무를 핑계로 백성을 고롭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지방관을 파견하기를 바랍니다.

9조 간청하건대 관료들이 조회에서는 모두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예복을 입도록 하고, .... 일반 백성들은 화려한 문양과 주름이 있는 고운 비단을 입을 수 없게 하고, 다만 굽은 명주로 만든 옷만 입게 하십시오.

13조 우리나라를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이를 대폭 줄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 주십시오.

14조 바라건데 임금께서는 몸가짐을 조심하시어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대할 때에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시 죄 있는자가 있다라도 죄의 경증을 모두 법대로만 논한다면 곧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사』「최승로 열전」



광종 7년(956) 쌍기는 사신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 때문에 머물렀다. 성기의 병이 낫자 (광종은) 그를 만나고 매우 흡족하였다.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껴 후주 황제에게 관료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 광종은 쌍기를 고려의 관리로 발탁하였다. .... 광종 9년(958) 쌍기는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미침내 자공거(知貢撈, 과거 시험관)가 되어 시(詩)-부(賦)-송(頌)-책(策)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 그 뒤로부터 여러 번 지공기가 되어 후학들의 학문을 권장하였다. 이로써 고려에서 학문을 중상하는 기운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 고려사



▲ 고려의 5도 양계

## 08. 조선의 정치

### 체제 정비★

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양으로 천도, 경복궁 건설</li> <li>정도전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 확립에 기여</li> </ul>
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 강화, 사병을 협파하여 군사권 장악</li> <li>국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폐법 실시</li> </ul>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집현전 설립</li> <li>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 지역을 개척하여 영토 확장</li> </ul>
세조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 폐지, 직진법 실시
성종	집현전을 계승한 흥문관을 설치하여 경연 활성화,『경국대전』반포

의정부에서 호폐법을 의논하여 이르기를, ..... “호폐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월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친다. .... 호폐를 위조하는 자는 위조보초율(偽造寶鈔律)로써 논죄하며, 호폐를 일어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을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폐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응위율로써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 자강 통치 체제

- 전국 8도 : 관찰사 파견
- 군현 :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속현 소멸)
- 향리 : 지방의 행정 실무
- 유향소(留鄉所)
- 향촌 차치 기구, 수령 자문향리의 비리 감시



### 흥구파의 성장과 사림의 등장

- 흥구파
  - 계유정난, 세조 즉위에 공헌
  - 기득권 장악
  - 사립파
    - 성리학적 도덕 정치
    - 향촌 질서 확립 추구
    - 성종 때 종양 정계 진출
    - 3사, 공론 주도
    - 훈구파 비판

### 사회(士禡)의 발생

- 연산군
  - 무오사화(조의제문, 1498)
  - 갑자사화(1504)
  - 중종반정(1506)
  - 기묘사화(1519)
  -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 현량과 시행, 향약 보급, 위훈 삭제
  - 을사사화(1545)

### 봉당의 형성★

- 사림의 중앙 정계 장악
  - 향촌 사회 장악
    - 서원, 학약 기반
  - 선조 때 주도권 장악
    - 동서 분당(1575)
      - 이조관과 임명 문제, 외척 진체 청산 문제
    - 동인 : 신진 사림, 김효원
    - 서인 : 기성 사림, 심의겸
    - 광해군 : 북인 집권
    - 인조반정 : 서인 집권(남인 공존)
  - 공론 정치
    - 차이 인정, 상호 토론과 비판

### 봉당 정치의 변질

- 비변사
  - 국정 총괄
  - 의정부와 6조의 유명무실화
  - 예송논쟁(현종)
    - 상복 기간을 둘러싼 예법 논쟁
    - 서인(1차, 1659), 남인(2차, 1674) 승리
  - 환국(換局)
    - 숙종(재위 1674~1720)
    - 서인, 남인 범갈마 집권
    - 서인 분열 → 노론 / 소론
    - 일당 전제화
    - 3사
      - 상대 봉당 비판, 기득권 유지로 변질

### 당평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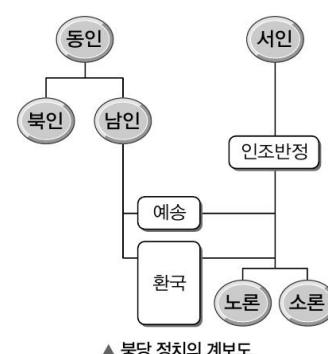
- 봉당 간 세력 균형, 왕권 강화
- 영조(재위 1724~1776)★
  - 수취 체제 개편(균역법), 향평파 육성
  - 『속대전』(법전),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 정조(재위 1776~1800)★
  - 규장각 설치, 초기문신체, 장용영 설치
  - 『대전통법』(법전), 신해통공, 서일 차별 완화
  - 수원 화성 축조

### 세도 정치(1800~1863)

- 순조 ~ 현종 ~ 철종
- 소수 외척 기문의 정권 독점
  -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 비변사 장악
  - 공론 기능 상실
  - 매관매직, 과거 부정
  - 수령, 향리의 수탈 → 삼정의 문란

### 하층민의 봉기

- 비기, 예언 사상, 미륵신앙 유행
- 소극적 저항
  - 벽서, 소청
  - 적극적 저항
    - 홍경래의 난(1811)
      - 서부 지방인 차별, 세도 정권의 수탈
    - 임술 농민 봉기(1862)
      - 진주, 텁관오리의 학정
      - 영남 안핵사 박규수, 삼정이경청 설치★



선조 대에 이르러 조정의 관리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반목하였다. 당초에 다툴 것을 조정하였지만 결국 서로 틀어져 버렸다. .... 마침내 기해년(1659)의 복제론(服制論)에서 크게 격화되었다. .... 갑인년(1674) 이래로 세상의 운수가 자주 변해 일진일퇴하며 배제하고 공격하는 기세를 조장하였고, 드디어 당시 일을 맡아 다스리던 사람들로 하여금 피치를 논할 것 없이 각각 편당하는 풍습에 주력하게 만들었으니, 청남과 탁남, 노론과 소론에서 대개를 이루어 볼 수 있다. –『숙종실록』-

봉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학에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본래 치우쳐 있고 적아서 사람을 쓰는 방법 역시 넓지 못한데,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같은 봉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집안에서 쌍용만을 서로 계속하고 있으니, 그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 저 귀양을 간 사람들은 그 경증을 참작하여 대신과 더불어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펑펑하게 거두어 쓰도록 하라. –『영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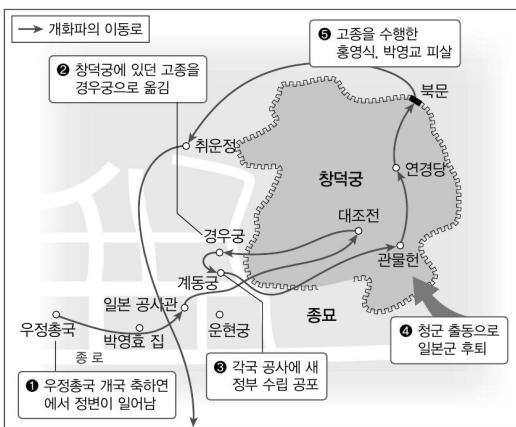
이제 만일 옛 제도를 복구하여 규장각을 대신하려 해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금을 참작하여 부들이 규장각을 따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내가 본디 시문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는 버릇이 있어, 매양 중요한 정무를 보던 중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 신하들과 경사(經史)에 대해 토론하고 백성의 고통, 정치의 득실 등에 대해 뜻을 따라 섭렵하고 있으니, 실상 보필로 여기는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규장각을 건립한 본뜻은 오직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조실록』-



## 11.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을미 개혁

### 갑신정변(1884. 10.17~10.19.)★

- 급진개화파의 불만, 일본 차관 도입 실패, 청フ 전쟁 발발
- 일본·공사의 군사적 지원 약속
- 우정청국 개국 축하연
- 개화당 정부 수립 → 14개조 개혁 정강 발표
  - 출신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할 것, 청에 대한 조공 허례는 논의하여 폐지할 것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 국내 재정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외 모든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침전이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
- 김옥균, 「갑신일록」
- 3일 천하 → 청의 내정 간섭 심화



### 한성 조약(1884)★

-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 및 공산관 신축 비용을 부담할 것 등 규정

### 톈진 조약(1885)

-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향후 조선에 피병 시 상대국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

### 거문도 사건(1885~1887)

- 영국 불법 점령(러시아 견제) → 조선 중립화론 대두(부들러, 유길준)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어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서로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이었다.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실로 러시아를 막아야하는 큰 기틀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그것은 중국에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유길준 전서」 4 정치·경제편, 외교편, 중립론 -

### 조선 중립화론 대두

-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유길준 등

### 교조 신원 운동(1893)

- 교조 최제우(1824~1864)의 신원과 표교의 자유를 요구, 삼례·집화·보은·장희

### 동학 농민 운동(1894)★★

- 고부 농민 봉기
  -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만석보 사건), 사발통문, 전봉준
- 제1차 봉기(백산 집결)
  - 안핵사(이용태)의 탄압, 4대 강령과 격문 발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구호
  - 황토현 황룡춘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 → 전주성 점령(4월)
- 청에 군사 요청
  - 청군 개입(아산만) → 일본군 상륙(톈진 조약 위반 구설, 제물포)
- 전주 회약 : 잡강소 설치, 폐개혁 약속(→ 고장청)
- 일본의 경복궁 습격
- 청일 전쟁 발발
  - 갑오개혁 강요 → 군국기무처 설치
  - 제2차 봉기(남접·재봉기)
    - 북접 + 남접, 논산 접결
    -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 반봉건 반침략 항일 의병 참여, 갑오개혁에 일부 요구 반영

재판관 : 작년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으로 그리 하였는가?

전봉준 : 그때 고부 군수가 정해진 액수 외의 거점주구가 몇만 낭이 되기 때문에 민심이 역을 하여 그리하였다.

재판관 : 흘어진 후에는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봉기하였는가?

전봉준 : 그 후 이용태가 안핵사로서 우리 고을에 와서 봉기한 백성을 동학이라 몰아 체포하여, 다시 일어났다.

재판관 : 전주 회약 이후 다시 일어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봉준 : 일본이 개화라 칭하며 군사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해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해 일본과 전투하기 위함이었다.



### 갑오개혁·을미개혁

- 제1차 : 군국기무처★, 강홍집 내각, 궁내부 설치, 공사 노비제 폐지, 과부 재가 하용

- 제2차 : 청일 전쟁에서 승기, 홍법 14조, 균대적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 조서 반포

: 소학교·사범학교·외국어 학교 관체(한성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 설치)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세운다.

3. 대군주(임금)는 ……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되, 종실과 외척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7. 조세의 개세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자야문에서 관할한다.

10. 지방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4. 사립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친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고종실록」 -

짐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통을 물려준 것이 이제 500여 년이 지났으니, 실로 우리 선왕들의 교화와 은덕이 사람들을 미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 신하와 백성들이 충성과 사랑을 능히 다했기 때문이다. ……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고 독립한 여려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밝게 열려 있다. 지식이 많은 것은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루하기 위해서이다.

- 「관보」(1895. 2. 2) -

- 제3차(을미개혁) : 건양 연호 제정, 태양력 사용, 단발령 공포, 종두법 확대 시행

머리를 깎으려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형세가 바이효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빽빽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 놓아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아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연호의 개정과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 황현, 「매진이록」 -

## 17.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 설력 양성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 배경 : 회사령 폐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 전개 : 평양에서 조민식 등이 시작 → 조선물산장려회, 전국으로 확산
- 구호 :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 한계 : 수요 증가 등으로 토산품 가격 폭등 →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노동자에게는 이제 사상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그들은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웨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은 .....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外貨) 배척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외래의 경제적 경복 계급을 축출하여 새로운 착취 계급으로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 동아일보 -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배경 :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 목적 :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 육성

- 전개 : 이상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조직 → 전국적인 모금 운동(한 민족 일천만, 한 사람이 일월식\*)

조선 안에는 한 개의 대학교도 설립하지 못하여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손실이 크고 많은 것은 누구든지 짐작하는 바이다. 이에 일반에서는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이지만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 이번에 조선 각지의 뜻을 모아 민중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하고 집행 위원회를 선정하였는데 .....

- 동아일보(1922. 11. 30.) -

### 문맹 퇴치 운동(1929~1934)

- 목적 : 1920년대 후반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보급과 민중 계몽을 도모

- 전개 : 문자 보급 운동(조선일보사 주도), 브나로드 운동(동아일보사 주도, 농촌 계몽 운동)



▲ 조선일보사가 발간한  
「문자 보급 교재」



▲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

### 민족 문화 수호 운동

#### 조선어 학회★(조선어 연구회에서 확대 개편됨, 1931)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우리말(조선말) 큰사전 편찬 사업 추진
- 조선어 학회 사건(1942)으로 타격

#### 일제의 역사 왜곡 : 식민 사관(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등), 조선사 편수회 주도

#### 민족주의 사학(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 및 민족정신 강조)

- 박은식★(1859~1925) : 국혼 중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역사』 저술
- 신채호★ :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저술  
→ 정인보 등에게 계승(조선학 운동 전개)

#### 사회 경제 사학

- 백남운 : 『조선 사회 경제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주장

### 만세 운동

#### 6·10 만세 운동(1926)★

- 전개 : 순종의 서거 이후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인산일에 맞춰 시위 계획
- 영향 : 민족 협동 전선의 토대 마련, 동맹 후학이 전개되는 등 항일 학생 운동 확산

순종 효황제 국장을 기회로 시내에서 발생된 중대 사건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천도교 격문 사건, 권오설과 격문 사건, 학생 ○○ 만세 사건 등 세 가지로 이미 취조까지 마치고 일부분은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시내 모처에서 또 그와 같이 국장을 기회로 소란을 일으키고자 여러 가지 을 모를 계획한 행적을 발견하고 활동하여 수일 전에 23명의 청년을 검거하고 병금 엄중 취조 중이었는데, ..... 국장 당일에 격문 문서를 뿌리어 ○○ 운동을 일으키려다가 그와 같이 발각된 것이라 한다.

- 조선일보(1926. 6. 16.)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 배경 : 학생들이 독서회 등을 결성하고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 전개
- 발단 :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 발생
- 전개 : 경찰 등이 한국인 학생 탄압 → 민족 차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 전개 → 전국으로 확산

1. 학생·대중이여 절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피검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검속자를 즉시 석방 하라. 교내외 경찰관 침입에 반대하라. .....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2. 조선 민중이여 절기하라! 피검자를 탈환하라. 재향 군인단의 비상소집에 반대하라. 경계망을 즉시 철清华라. 소방대 청년단을 즉시 해산하라. 광주 종학을 폐쇄하라. 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신간회(1927~1931)★

- 배경 :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전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차지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 모색
- 결성 및 활동

계기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정우회 선언 발표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1927)</li> <li>• 강령 : 정치적·경제적 각성 촉진, 공고한 단결, 기회주의의 일체 부인</li> <li>• 조직 : 4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대규모 단체로 성장</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 강연회 개최, 농민·노동 운동 등 사회 운동과 연계</li> <li>•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광주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 계획</li> </ul>

신간회 고성 지회에서는 긴급 간사회를 열고 ..... 보통학교 생도 구타 사건을 토의하였다는데 그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심상 소학교 생도가 작성하여 보통학교 생도를 구타한 사건에 대하여 생명 존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과 학부형제회에서 하등의 진지한 성의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일본인 생도가 조선인 생도를 작성 구타한 사실은 도저히 거지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양 학교에 문책하여 민족 문제로서 서의 적극적 진리를 기합.

- 동아일보(1928. 1. 30.) -

#### 해소

배경	민족 대회 준비 중 지도부 체포 →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운간한 활동 방향 모색
과정	• 코민테른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민테른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li> <li>• 조선 폐지 및 결혼의 자유</li> <li>•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원</li> <li>•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아군 폐지</li> </ul>

#### \* 정우회 선언(1926. 11)

우리 운동 자체가 경제적 투쟁에 국한되어 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층 개급적이고 대중적이며 의식적인 정치적 형태로 비약해야 할 전환기에 도달한 것이다. .....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와 과정적 동맹을 맺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여, 그것이 탄력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

### 사회 운동

#### 농민 운동

- 배경 :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소작농 증가, 높은 소작료와 수리 조합비 부담으로 어려움 가중
- 전개 : 화전민, 도시 빈민(토막민), 해외 이주민 증가

- 암태도 소작 쟁의(1923~1924)
- 농민 운동의 변화

줄래 조선의 농민 운동이 치열하였다고는 하나 무리한 소작권 이동과 높은 소작료 반대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1930년경부터 정의 형태가 차츰 전통적으로 변해 갔다. 그것은 이미 단순히 경작권 확보를 위해 서거나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농민 앙합, 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민 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 단체를 조직하여 지주에 대한 투쟁이 정치적 투쟁화 하는 경향이 생겼다.

- 「조선 총독부 경무국 비밀 보고서」 -

### 노동 운동

- 배경 :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도시 노동자 증가 → 저임금, 장시간 노동, 민족 차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 전개 :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요구
- 원산 총파업(1929) : 석유 회사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발생

### 청년 운동

- 조선 청년 총동맹(1924) 등 각종 청년 단체 결성

### 소년 운동★

- 방정환이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 중심, 어린이날 제정(1923)

### 여성 운동

- 여성 단체의 좌우합작으로 근우회 결성★(1927) → 순회 강연회 등 여성 계몽 활동 전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과거의 조선 여성 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그 러므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는 우선 조선 자ماء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인 일체의 차별 철폐
2. 일체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
3. 조선 폐지 및 결혼의 자유
4.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원
5.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아군 폐지



### 형평 운동★

- 조선 형평시(진주)에서 백정들이 결성, 1923) → 평등 사회 실현 추구

공명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힘이 본사의 큰 뜻이다.

## 20. 통일 정책

### 박정희 정부

- 닉슨 독트린(1969)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전두환 정부

-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1983) → 남북 이산가족 상봉(1985)

### 노태우 정부★

- 남북 고위급 회담(1990)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 체택(1991)★
- 최초 공식 합의, 서로의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합의, 잠정적 특수 관계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 김대중 정부★

- 대북 유화 정책(햇볕 정책)
-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1998)
- 제1차 남북 정상 회담(2000)★
- 6·15 남북 공동 선언★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측의 연합체 =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체
-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 공단 건설 추진

### 노무현 정부

- 금강산 관광(육로)
- 개성 공단 운영 본격화(2004)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남북 정상 선언
- 항구적 평화
-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 문재인 정부

- 2018 판문점 정상 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

### 7·4 남북 공동 성명(요약, 1972. 7. 4.)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남북 기본 합의서(요약, 1991. 12. 13.)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4. 남과 북은 상대방을 폄하·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5.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6·15 남북 공동 선언(요약, 2000. 6. 15.)

1. 나리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3.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의 협력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요약, 2007. 10. 4.)

1.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5.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여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6.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요약, 2018. 4. 27.)

1.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